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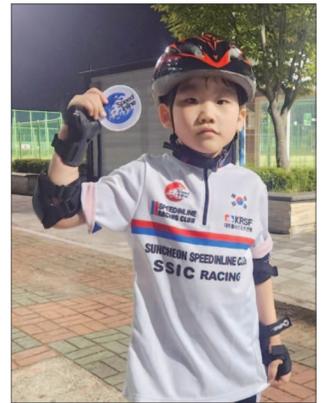
지난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전남도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수·태권권 종목에 참가하는 이의재씨와 윤시아양 모녀.



축구 유소년부에 참가하는 감독 정진철씨와 선수 정시윤군 부자.



롤러 종목에 나서는 최연소 참가자 주은주군.

전남 체육, 위상 향상...기량 겨루며 저변 확대 꾀한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4~27일 팡파르 17개 시·도 2만여명...골프 등 41개 종목서 열전 전남, 이색 선수 출출동...“체육 균형 발전 기대”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대축제인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24일부터 27일까지 전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종합대회인 이번 대축전은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아래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단이 참가한다. 대회는골프·검도·핸드볼·수중수영·배드민턴

·육상 등 41개 종목의 경기가목포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전남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또 한·일 생활체육 국제교류 차원에서 일본 생활체육 동호인 151명도 방한, 축구·배드민턴·테니스·배구 등 8개 종목에 참가해 양국 간 우호 증진에 나선다. 그동안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는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경기 운영, 시설 정비, 안전 관리, 의료 지원, 교통 및 숙박 대책, 자원봉사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쳐 준비를 마쳤다. 이외에 각 시·군체육회와 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맞춤형 경기 운영과 손님맞이 계획도 철저히 수립했다. 개최지인 전남도 선수단은 검도, 게이트볼, 골프, 농구, 당구 등 41개 전 종목에 걸쳐 총 1655명(선수 1329명, 임원 326명)이 참가해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를 선도하며, 개최지로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궁도, 당구, 롤러, 배구, 배드민턴 등 34개 종목 792명이 참가한다. 특히 전남은 다양한 이색 선수가 참가해 대회를 빛냈다. 최고령 참가자는 소프트테니스 종목의 이계수영

(90)이며, 최연소 선수는 롤러종목에 참가하는 주은주군(8)이다. 이들은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체육의 참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참가하는 사례 또한 눈길을 끈다. 김성봉(77)·오이순(70) 부부는 대회 5번째 도전에 나서며, 부부 모두 포환던지기에서 연속 메달에 도전한다. 그라운드골프에 참가하는 이점순(86)·이사순(77) 자매는 70대 이상 여성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자매애를 과시할 태세다. 아울러 축구 유소년부에는 보성FC 감독으로 출전하는 정진철씨(44)와 선수로 출전하는 아들 정시윤군(12)이 나란히 참가해 '부자(父子) 동반 출전'이라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순천마스터즈 소속 이의재씨(31)와 딸 윤

시아양(8) 모녀도 각각 다른 우수 태권권 종목에 나서면서 가족 간의 건강한 체육 활동 문화를 보여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에서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을 모시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대축전이 건강한 삶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도민과 국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인심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전남에서 함께 맘 즐기고 화합하는 시간이 전남 체육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도민 건강 증진, 지역 체육의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끌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체중 송채연, 전국체조선수권 '3관왕'

마루·이단평행봉 '금'...개인종합 1위 올라 도마·평균대는 '동'...단체종합 준우승 달성

광주체육중학교 체조부 송채연(3년·사진)이 '제80회 전국중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주니어 국가대표인 송채연은 최근 충북 제천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세이하부에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송채연은 기계체조 도마(12.733점·1위), 이단평행봉(11.867점·1위), 평균대(10.733점·3위), 마루(10.300점·4위) 등 4개 종목 예선 점수를 합산한 개인종합에서 45.633점을 받아 첫 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이어 종목별 결승에서 이단평행봉(11.933점)과 마루(11.367점)에서 1위에 오르며 3관왕을 차지했다. 도마 결승에서는 11.700점을 기록, 박혜란(한일중·12.183점)과 이혜진(서울체중·11.850점)에 이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평균

대 결승에서도 10.667점을 받아 이혜진(서울체중·11.367점)과 박혜란(11.300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송채연은 홍석류·박혜빈·김예린·금진주·홍라희(이상 1년)·박유빈(2년)과 함께 출전한 대회 여자 15세이하부 단체종합에서는 도마·이단평행봉·평균대·마루 등 4개 종목 총점 161.833점을 얻어 서울체중(169.434점)에 이어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홍윤식 광주체중 체조감독은 "선수들이 동계 훈련 기간을 거쳐 대회 전까지 기초체력 및 기술 훈련 향상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집중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5월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멘탈 훈련인 심리적 측면과 자세 교정을 보강해 나가는 등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프로축구 광주FC가 5월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김천상무와의 경기에 초등학생 입장권을 1000원에 판매한다.

광주FC, 어린이날 초등생 티켓 1000원 판매

내달 5일 김천과 흥경기...원정 버스 50% 할인도

프로축구 광주FC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22일 광주FC에 따르면 오는 5월 5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김천상무와의 흥경기에 초등학생 입장권을 1000원에 판매한다. 이는 정상이 8000원 대비 87.5% 할인된 금액으로, 어린이날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경기장을 찾자 K리그의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 할인 혜택은 온라인 및 현장 구매 모두 적용된다. 광주는 어린이날 가족 관람객을 위해 인기 캐릭터 상품부터 포토존 및 간식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준비할 계획이다.

또 5월부터는 원정 버스 초등학생 대상 50% 할인 혜택을 운영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팬들의 원정 응원이 늘고 있어 가족 단위 응원객의 비율이 부담된다. 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FC 관계자는 "광주는 가족 단위 팬층이 두껍고, 어린이 팬들의 방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어린이날을 계기로 더 많은 아이들이 경기장을 찾고, 축구의 즐거움을 가까이에서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하고 합리적인 팬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어린이 팬들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 임성재, 3연패 도전...1999년 박남신 후 26년 만

임성재가 한국프로골프(KPGA)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3연패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우리금융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임성재는 2023년과 작년엔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이번에 우승하면 3연패다. KPGA투어에서 동일 대회 3년 연속 우승은 지금까지 6번 있었지만, 1999년 박남신이 SBS 프로골프 최강전 3연패를 이룬 이후 26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 우리금융그룹의 후원을 받는 임성재는 2022년부터 해마다 이 대회 출전을 위해 잠시 PGA투어를 접고 귀국하곤 했다.

2022년에는 대회 직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귀국하고도 출전하지 못했지만 2023년과 작년에는 시차 적응에 애를 먹으면서도 기어코 우승을 따내 팬들을 열광시켰다. 올해도 임성재는 PGA투어 RBC 헤리티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22일 한국에 도착, 23일 연습 라운드를 한번 치른 뒤 24일 1라운드에 나서는 강행군을 펼친다. 임성재는 "우리금융 챔피언십 3연패는 꼭 이루고 싶다. 출전할 때마다 고국 팬들의 응원에 힘입는다. 이번에도 많은 현장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의욕을 보였다. 임성재는 최근 마스터스 공동 5위에 이어 RBC 헤리티지에서 공동 11위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에

올리탄 만큼 3연패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하지만 KPGA투어 젊은 후배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시즌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작년과 달랐던 기량으로 우승한 2년차 김백준은 임성재의 3연패를 저지하고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KPGA투어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점진 조우영,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준우승한 옥태훈, 그리고 미국 진출을 꿈꾸는 최승민 등이 경계 대상이다. 특히 조우영을 비롯해 이정환, 황준근, 박준홍, 조민규, 문동현 등 우리금융그룹 로고를 모자에 달고 뛰는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 전팬 WEEK 릴레이 시구

25~27일 흥경기서 배우 최병찬·크래비티 민희·우빈 나서

KIA타이거즈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LG와의 흥경기를 '타이거즈 전팬 WEEK'로 치르며 다양한 인사를 초청해 시구 이벤트를 개최한다. 첫날은 전팬 배우 최병찬을 시구자로 초청한다. 평소 KIA 경기를 자주 직관하며 남다른 팬심을 드러낸 최병찬은 "작년 우승팀 KIA의 흥경기 시구를 맡아 기쁘고 영광이다"며 "올 시즌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둘째 날인 26일은 광주 유명 푸딩 브랜드인 주디마리의 캐릭터 주디가 시구자로 나선다. KIA와 주



디마리는 지난 11일부터 챔피언스 필드에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며 팬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다. 마지막 날인 27일은 전팬 아이돌 크래비티의 민희와 우빈이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